

어떤 죽음도 결코 '안락' 할 수 없다

불자 세상보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전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락사에 관한 의료적, 윤리적 논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에 따르면 숨을 쉬는구나 그렇지 않느냐가 사망 판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기술은 산소호흡기 등의 장치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실제로 뇌사에 들어갔지만 이런 장치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의 호흡을 돕는 인위적 기구를 제거하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논쟁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안락사'로서, 불치의 말기암 환자나 같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할 때 편한 죽음에

이르도록 '사망'을 시키는 문제이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에 따라 기르기가 힘들 때 안락사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된다. 특히 서구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신의 뜻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로 금기시 되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통과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 추세임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환자나 그 가족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법적 인정

'불살생' 계율 위반 생명존중 어긋나



이희재 관주대 교수 철학

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 논이나 입법으로는 가지 않는 실정이다.

불교에서는 안락사의 반대이유를 절대자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는 보지 않는다. 인간의 탄생은 오하여 근본 무명(根本無明)에서 비롯되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무명을 제거하면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라는 자주적인 태도를 존중한다.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의 의미가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라는 점은 깨달은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기꺼워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는 긍정의 뜻도 담겨 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말로 운당하지 않은 태도일 수도 있다. 인간의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현상세계가 '마치 꿈같고, 환상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고 그리고 이슬같고 번개같고'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체유위법 여동환포영 여로역여전(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금강경). 이것은 불교가 인간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곤충과 미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비폭력' '불살생'의 가치가 불교정신의 진수라는 점에서 자살

이나 안락사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도 '불살생'의 계율에 위반되는 살인행위이며, 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범법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보는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살생에 해당되는 것이다.

안락사 논쟁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을 '단 한 번뿐'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한, 세속적인 명리만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어떤 죽음도 결코 안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노·사가 정부의 민영화 및 분할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할 공기업의 노사가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 이런 계약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나라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왜 정직해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이렇게 들었다

정직

빈천 속에서 죽을망정...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위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열치있게 사느라 비록 고생을 겪을 지언정, 정직과 의를 위해 책망하며 간사스럽게 살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부귀경>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육도집경>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인이 채워져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만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심경>

■말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는가, 마음은 약 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법범보경>

■수행자는 심견(心見, 마음의 작용)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화엄경>

■아첨하는 마음은 도(道)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 할 것이다. <유교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고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가지 선업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결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함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결묘양이 윤희(柔和)하며, 모든 사곡(歌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미경>

■'그릇된 생각'(邪見)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실사 인간에게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바, 첫째는 항상 사경을 지닌 집안에 태어나고, 둘째는 그 마음이 사악하다. <십수경>

■그릇된 생각은 도득을 만든다. <천칭문경>

■그릇된 사악하여 정정치 못한 마음을 지녔을 때는 역경(億劫)을 찾는다(나)고 해도 여래를 만나 뵈기 어려울 것이다. <화엄경>

열린 마당

21세기 환경문화와 종교

<h4>"환경보살운동 펴자"</h4> <p>최종석박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p> <p>21세기 환경의식의 혁명은 결국 인간중심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환경 친화적 이상(理想)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菩薩)을 접목시킨 '환경보살' 상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 대승보살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환경보살로 새롭게 해석된다면, 이 시대의 종교문화가 환경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환경보살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완성하게 하는 길이 여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양식의 보살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보살이 완성해야 할 삶의 양식으로 보시(布施)는 '준다'는 말이다. 이와같은 여섯 가지 환경보살의 삶의 양식은 모두, 모든 존재가 나와 났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p>	<h4>"여성중심 환경운동"</h4> <p>최민석신부 <가톨릭 농민회></p> <p>대부분 근본주의적 신앙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국 가톨릭교인에게 환경운동은 세속적인 운동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리스도교 환경운동을 창조신앙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천주교사회 운동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표방해 왔던 '생활신앙운동'에서 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p> <p>이 운동의 특징은, 환경문제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으로서 여성성에 주목하는 데 있다. 여성운동과 생명운동은 서로 비슷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운동을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환경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재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운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 신앙에서 탈피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지성사회의 사실을 깨달은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p>	<h4>"생태학적 禮敎 모색"</h4> <p>박신환교수 <숭실대></p> <p>유교도 이제 기존의 관념들에 대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해석 시도하고 유용한 가치들을 재발굴해야 한다. 송대의 유학자들은 인(仁)을 만물을 살리는 것으로, 의(義)를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 효(孝)를 천지의 뜻과 활동을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p> <p>그러나 이런 의미의 선악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태계와의 만남에서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인(仁)의 효와 같은 개념이 생태학적으로 해석되고 의미부여가 된다면,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예교(禮敎) 즉 생태학적 예교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교육되어야 한다.</p> <p>더구나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지적 영역을 넘어서 전체 구성원 또는 인류에게 그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이에 맞는 행위 지침으로서의 예교의 제정과 그 교육은 시각을 다루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p>	<h4>"자연의 존엄성 성찰"</h4> <p>이정배교수 <김리교신학대></p> <p>기독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타락과 구원의 드라마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놓쳐 버렸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배후신 구원 이외에도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총도 있다. 자연과 환경이란 인간 삶의 근거이자 생명력을 지닌 공간이다. 그러나 개발 이데올로기, 곧 성장과 발전에 눈이 어두워 자연을 물질회독의 대상으로만 보아 온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자연 내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현존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p> <p>21세기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가 국가부도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자연부도 등도 염려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파악하고 그 근거와 친밀해지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또한 공간 속에 내재된 생명과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지니며 일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p>	<h4>"모든 생명체와 공존"</h4> <p>하상의교수 <영신원불교대></p> <p>인간과 자연과 우주 속의 모든 존재는 고립되어 있을 수 없다. 즉 진정한 자는 이 지상에 서 모든 생명체들과 우리는 공존하는 '생태적 자아'인 것이다. 화엄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인드라마는 유류 보석으로 짜여진 그물과 같다. 각각의 유류보석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보석 속 다른 보석들이 서로 투영되어 있어 말 그대로 중중무진의 존재의 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모습 속에서 너를 볼 뿐만 아니라, 우주가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 자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각이 아닐 때 사랑이나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생태문제나 생명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어떤 조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은 개개의 존재들이 접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중해야 한다.</p>
--	---	--	--	--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법보 · 법화 · 법계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집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기쁘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영문
V 참회법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르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 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르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익은 생·각·의 집

이양희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겹겹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넌바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시집·자연애 소재로만 주옥같은 시, 불사행동은 이미 지은 시 등 우러러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좋은 시들부터 기록합니다.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름에서 발간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